



보 도 자 료

[총 20매, 세부자료 붙임]

배포 : 2012년 7월 18일(수)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차화준 02-760-4749 / hjcha@arko.or.kr

정책기획부 홍보담당 백선기 02-760-4537 / bsk6558@arko.or.kr

제13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기자간담회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월 18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한국 현대건축이 분출하는 다양한 현상을 선보이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방향 소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에서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2012년 제13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김병윤 대전대학교 교수의 전시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병윤 커미셔너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작가, 전시 운영 방향, 전시 예정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 금번 한국관의 전시 주제는 ‘건축을 걷다-Walk in Architecture’로 상호작용성, 친환경성, 장소의 기억, 감각의 구축, 섬세함과 감축성 등 5개의 소주제를 바탕으로 건축의 시간성, 공간성, 사유성을 재인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국관 참여작가로는 김태만(해안건축 대표), 김현수(이소우건축 대표), 박승홍(디엠포건축 대표), 박진택(Jtparchitecture 대표), 오영욱(oddaa 소장), 윤창기(경암건축 대표), 이상림(공간 대표), 한종률(삼우건축 부사장) 씨가 선정됐다.
- 전시는 8명의 작가가 쓰는 8개의 시나리오로 구상되며, 각각 ‘부상과 직조(Floating & Weaved Ground, 김태만)’, ‘회상(Remembrance Ground, 한종률)’, ‘느림과 재편(Slow & Recited Ground, 이상림)’, ‘장소와 정서(Reconciliated Ground, 박승홍)’, ‘지속(Juxtaposed Ground, 오영욱)’, ‘재구축(Restructured Ground, 김현수)’, ‘연결(Linked & Signposted Ground, 박진택)’, ‘표현(Featured Ground, 윤창기)’이라는 영상중심의 건축다큐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병윤 커미셔너는 “이번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통해 한국 건축의 현실을 세계 속에 알리며, 한국 현대건축이 지니는 현상을 유동적 체험을 바탕으로 건축이 지닌 시간적, 장소적 경험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병윤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2005년, 2009년 2회 수상)을 비롯한 국내외 우수 건축전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건축대전 초대작가, SAKIA(건축가학교)의 총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인 파주출판도시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및 연수지원센터(호텔 지지향 紙之鄉), 정릉동 성당, 몽죽헌 주택, 의연재 주택 등이 있다.

-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 시작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비엔날레에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1995년 전수천, 1997년 강익중, 1999년 이불 등의 참가작가가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은 1980년 미술전으로부터 분리되어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최고 권위의 국제 건축전시회다.
- 2012년 13회를 맞은 이번 국제 건축전의 총감독으로는 영국의 저명한 건축가인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임명되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 교수, 예일대 건축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표 건축물로는 앵커리지 역사박물관, 바로셀로나 법원, 아이오와 디모인 공공도서관 등이 유명하다.
- 2012년 제13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은 2012년 8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2-760-4749)

붙임 : 1. 베니스비엔날레 개요 1부

2. 역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및 참가작가 현황 1부

3.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이력 1부

4. 김병운 커미셔너 이력

5. 참여작가 이력

6. 참여작가 작품소개 1부. 끝.

붙임 1. 베니스비엔날레 개요

■ 베니스비엔날레 개요 및 역사

1) 위치

- 이태리 베니스 카스텔로 공원(Giardini di Castello)

2) 특징

- 문화 관광도시인 베니스의 성격을 바탕으로 착안된 행사로서 순수미술행사와 관광의 연계를 꾀하는데서 출발, 베니스의 지식인, 시장, 기업인 예술가가 함께 기획한 사업.
- 베니스 비엔날레는 휘트니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미술행사로서 세계 미술계에서도 가장 오래 되고 영향력 있는 국제 미술전임
- 이태리 베네치아시 남동쪽 카스텔로 공원내 10만평 부지 위에서 펼쳐지는 베니스비엔날레는 국가관별로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는 1986년에 첫 참가를 하였으며, 전시관이 없어 이태리관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아 참가하던 중, 우리 정부는 1995년 26번째로 독립된 국가관인 한국관을 건립 우리 미술의 해외소개를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함.
- 우리나라 사람으로 93년 독일관 대표로 참가한 백남준이 황금사자상을, 95년 한국관 개관 첫회에 전수천 작가가 특별상을, 97년 강익중 작가, 99년에 이불 작가가 연속 3회 특별상을 받았음.
- * 홀수년은 미술전, 짝수년은 건축전으로 개최되며 98년 건축전은 개최국사정으로 개최되지 않았음.

3) 설립

- 1895년 설립
이탈리아 황제부부의 은혼식 기념
1893년에 베니스 시의회가 1895년 비엔날레 개최 발표

4) 전시

- 개최시기- 미술전(홀수년), 건축전(짝수년)
- 참가국- 평균60여개국 200여명의 작가
- 조직-22명의 이사회가 전체 총괄
- 예산- 베니스시부담:50%+국가부담:50%

- 전시구성- 본전시(주제전)
 특별전(3-4개)
 아르세날레전(비엔날레 총감독이 작가선정)
 국가관전(파빌리온식: 국가별 커미셔너가 작가선정)
 기타 전시관련 행사
- 시상제도- 황금사자상(3개부분-국가관상, 개인작가상, 35세 미만 젊은 작가상),
 평생공로상, 특별상(해마다 시상여부 다름)
- 심사- 미술계인사

5) 국가관 현황

- 총전시관 : 총 27개국 26개관
 - 이탈리아 (1894), 벨기에(1907), 헝가리(1909), 독일(1909), 영국(1909), 프랑스 (1912), 네덜란드(1912), 러시아(1914), 스페인(1922), 체코슬로바키아(1926), 미국(1930), 덴마크(1932), 베네치아(1932), 오스트리아(1934), 그리스(1934), 이스라엘(1951), 스위스(1951), 베네수엘라(1954), 일본(1955), 아이슬란드 (1955), 캐나다(1958), 우루과이(1958), 스칸디나비아 3국(핀란드,노르웨이, 스웨덴)(1959), 브라질(1964), 오스트레일리아(1988), 한국(1995)
- 독립국가관수 : 총 26개관 (이태리 2개 전시관(이탈리아,베네치아관) 운영)
- 한국관 개관 : 1995년 26번째 국가관으로 개관
- 아시아권 국가관 운영현황 : 한국, 일본

■ 2012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전시 개요

- 전시명 : 제13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 전시장소 : 이태리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 및 아르세날레
- 전시일정 : 2012. 8. 29~ 11. 25
 - 시사회 : 2012. 8. 27~ 8. 28
- 전시감독 : 데이비드 칩퍼필드(David Chipperfield)
- 전시주제 : Common Ground
- 한국관 커미셔너 : 김병윤(대전대학교 교수)
- 협력 커미셔너 : 전영훈(대전대학교), 유현준(홍익대학교), 피터 페레토(서울대학교)
- 전시 코디네이터 : 이희준(대전대학교), 김은정
- 한국관 전시 주제 : 건축을 걷다(WALK IN ARCHITECTURE)
 - 소주제 1 : POST MAX > The future of Korean Architecture >TOMORROW
 - 소주제 2 : POST GRAY >A sustainable outlook beyond the modern

>TOGETHER

- 소주제 3 : ENGRAVING EMOTIONS > Existing and Past conditions>EXISTING
- 소주제 4 : ENGRAVING TECTONICS > Positioning ourselves within nature >BETWEEN
- 소주제 5 : WAY TACTILITY > Architecture related to the senses > TANGIBLE
- 참가작가 : 김태만(해안건축 대표), 김현수(이소우건축 대표), 박승홍(디엠펜 건축 대표), 박진택(Jtparchitecture 대표), 오영욱(oddaa 소장), 윤창기(경암 건축 대표), 이상림(공간 대표), 한종률(삼우건축 부사장)
- 전시 개막일 : 2012. 8. 28(화)

붙임 2. 역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및 참가작가 현황

연도	행사명	주관	기간	커미셔너	참가 작가
1995	미술전 (제46회)	문예진흥원	1995.6.11-10.15 (6.7-10:시사회)	이 일	김인겸, 전수천, 곽 훈(이상 설치) 윤형근(회화) * 전수천 특별상 수상
1996	건축전 (제6회)	한국건축가협회	1996.9.15-11.17 (9.11-13:시사회)	강석원	국립중앙박물관 및 명동성당지구 재개발 설계경기 작품 17점
1997	미술전 (제47회)	문예진흥원	1997.6.15-11.9 (6.11-13:시사회)	오광수	강익중(회화), 이형우(조각) * 강익중 특별상 수상
1999	미술전 (제48회)	문예진흥원	1999.6.12-11.7 (6.9-11:시사회)	송미숙	이불(설치), 노상균(회화) * 이불 특별상 수상
2000	건축전 (제7회)	문예진흥원	2000.6.18-10.29 (6.15-16:시사회)	김석철	최민, 조건영, 이상해, 안건혁, 이상현, 김동건 등
2001	미술전 (제49회)	문예진흥원	2001.6.9-11.4 (6.6-8:시사회)	박경미	서도호(설치), 마이클 주(조형)
2002	건축전 (제8회)	문예진흥원	2002.9.7-11.3 (9.6-7:시사회)	김종성	김영준, 김종규·김준성, 민현식·이민아, 박헬렌주현, 우규승, 이종호, 조성룡
2003	미술전 (제50회)	문예진흥원	2003.6.12-11.2 (6.12-14:시사회)	김홍희	황인기, 정서영, 박이소
2004	건축전 (제9회)	문예진흥원	2004.9.12-11.9 (9.9-11 시사회)	정기용	김광수, 송재호, 유석연
2005	미술전 (제51회)	문예진흥원	2005.6.12-11.6 (6.9-11 시사회)	김선정	김범, 김소라, 김홍석, 문성식, 박기원, 박세진, 배영환, 오형근, 정연두, 최정화, 함진
2006	건축전 (제10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06.9.9-11.19 (9.7-8 시사회)	조성룡	김승희, 김찬중, 김현, 신혜원, 최욱
2007	미술전 (제52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07.6.10-11.21 (6.7-9 시사회)	안소연	이형구
2008	건축전 (제11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08.9.14-11.23 (9.11-13 시사회)	승효상	최문규(큐레이터), 배형민(도큐멘터) * 별도 참가작가 없이 진행
2009	미술전 (제53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09.6.7-11.22 (6.4-6 시사회)	주은지	양혜규
2010	건축전 (제12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10.8.29-11.21 (8.26-28 시사회)	권문성	이충기, 이상구, 조정규, 신승수, 하태석
2011	미술전 (제54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11.6.4~11.27 (6.1~3 시사회)	윤재갑	이용백
2012	건축전 (제13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12.8.29~11.25 (8.27~28 시사회)	김병윤	김현수, 윤창기, 박진택, 오영욱, 김태만, 박승홍, 이상림, 한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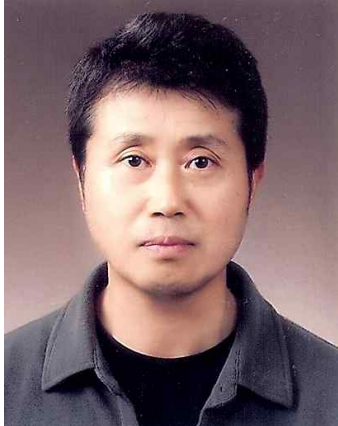
붙임 3.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이력

-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는 Kingston School of Art와 런던의 AA스쿨(Architectural Association)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Douglas Stephen, Richard Rogers, 그리고 Norman Foster의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는 세계 각 국에서 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1995년에서 2001년까지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 예술대학(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uenste, Stuttgart)에서 건축학 교수를 지냈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미국의 학교에서 건축학 방문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예일 대학교에서 건축디자인 방문교수로 있다.
- 1984년에 설립된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축사무소는 현재 런던, 베를린, 밀라노, 상하이 등지에 지사를 두고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사무소의 최근 주요 작업은 베를린의 신 박물관(Neues Museum) 보수,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역사박물관, 바로셀로나 법원, 아이오와 디모인 공공도서관, 중국 항저우의 주거지역인 Ninetree Village, 독일 에센의 폴크방 미술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Kaufhaus Tyrol 백화점, 비엔나의 Peek&Cloppenburg 플래그십 스토어, 바젤의 Novartis campus 연구소, 마게이트의 터너 현대 미술관, 영국의 웨이크필드 헵웨스 갤러리가 대표적이다.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멕시코의 Colecci'on Jumex 미술관, 런던 리전트 가(街) 의 5성급 호텔, 러시아의 Perm Opera and Ballet Theatre, 모로코의 마라케슈 미술관, 런던의 워털루 인근 사업·거주단지 개발, 제임스 사이먼 미술관, 베를린 박물관섬(Museum Island)의 새로운 출입 건물, 미국 세인트루이스 미술박물관의 새 건물, 밀라노의 안잘도 문화도시 프로젝트, 스위스의 취리히 미술관 새 건물이 있다.
- 그는 일찍이 가구, 조명, 식기 같은 분야뿐 아니라 Issey Miyake, Joseph, Dolce &Gabbana, Valentino의 매장 인테리어를 포함한 실내 공간의 디자인과 기능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Tonale range of ceramics for Alessi는 2011년 황금 콤파스(Compassod'Oro)를 수상했고, Piana 접이식 의자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영구 소장품 자격을 획득했다.

- 그의 작품은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 미국건축가협회(AIA) 대상 등 수많은 국제상과 표창을 받았다. 2007년에는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가 수여하는 스티어링 상(Stirling Prize), 2011에는 미스 반 데어 로에상을 수상했다. 1999년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하인리히 테세노브 금메달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07년 미국건축가협회와 Bund Deutscher Architekten(BDA) 명예 회원이 되었고, 2010년에는 건축문화 부문 Grand DAI상과 예술 부문 울프상을 수상했다. 그는 또한 2010년 켄트 대학교, 2009년 킹스턴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 2004년 그는 건축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을 받았다. 그는 2006년 'Royal Designer for Industry'로 선정됐고, 2008년에는 로열아카데미에 선출됐다. 2009년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국가에 공헌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예인 독일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을 받았고, 2010년에는 건축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영국과 독일에서 기사 작위를 받았다. 2011년에는 영국왕립건축협회로부터 여왕으로부터 로열골드메달을 수여받았다.

붙임 4. 김병윤 커미셔너 이력



김병윤 / Kim Byung Yoon / 金炳潤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편찬위원장, 건축학교 총괄교수

김병윤은 1952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건축과 학사 석사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영국 AA스쿨에서 수학하였다. 건축설계연구소 스튜디오 메타를 설립했고 건축가그룹 4.3그룹을 결성하였으며 SA(서울 건축학교)운영동인으로 활동하였다. 한국건축가협회의 특별상인 아천건축상을 수상했고, 김수근 건축문화상,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2회 수상하였다.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단계별 작업 국제현상공모에서 당선하여 1999년에서 지난 2007년 호텔 지지향을 완성할 때까지 3단계 작업(전시지원센터 출판문화업무지원센터, 연수지원센터)을 완성하였다. 현재 대전대학교 건축학과의 교수로 활동하며 지난해 한국건축가협회의 명예이사로 추대되었고 건축대전 초대작가이며 편찬위원장과 SAKIA(건축가학교)의 총괄교수로 정기겨울학교와 여름 특별학교를 영국 AA School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 학력 및 경력

- 한양대 건축학과졸업, 석사, 박사수료
- 영국AA School of Architecture 수학
- 스튜디오메타설립, 건축연구소 대표건축가
- 경기대건축과 디자인디렉터, 교수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서울건축학교(SA) 운영위원. 교장
- 대한민국건축대전공모전 심사위원장
- 건설교통부 건축사자격심위위원
- 서울시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FACS) 국제현상심사위원
- 경기도청사 국제현상 심사위원
- 현-대한민국건축대전초대작가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편찬위원장, 건축학교(SAKIA)총괄교수
-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 건축자문위원
-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건축도시부문 자문위원장
- 행안부 정부청사 건립 건축자문위원

□ 수상 및 전시

-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아천상수상(1999)
- 김수근문화상 수상(2004)
- 제24회건축대전 초대작가부문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2005)
- 2009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 수상
- 김수근문화재단 초청개인전(2005)
- 독일Aedes Berlin초청전(2005)
- 바르셀로나 Actar초청전(2005)
-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전(1999-2010)
- 오스트리아 그라츠,쿤스트하우스초청전(2006)
- 한국농촌건축학회 국제주거계획초청전(2005, 07, 08)
- 9 Probes in Korean Architecture초청국제전(2006)
- 가톨릭 문화센터, 가톨릭성당건축10제 초청전
- 대전광역시 초청 국제건축전(2009,10,11)
- 6대광역시 초청 건축전(2010)

□ 주요작품<관련수상및 발표기록>-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연수지원센터(호텔 紙之鄉)
(C3, 공간지, Wall Paper, 영국 Landscape ,2008 베니스비엔날레전 파주출판도시 수
록-김수근문화상 수상)
- 내심경 주택(C3, 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도록수록)
- 몽죽헌 주택(C3, 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도록수록-아천건축상 수상)
- The Wall(도예건축조형작업, 건축대전 초대작가전-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 그림있는 정원 주택(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도록수록)
- 의연재 주택(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도록수록)
- 노원문화의 거리조성사업(MA수행, 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도록수록)
- 정릉동성당(C3, Concept, 건축문화, 가톨릭건축10제 초청전)
- 대전 어남동 경로당(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도록수록)
- 대전 충무시설재활용계획(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도록수록)
- Public Interface(영산강 재생계획-국제건축전 도록수록)
- 치유의 집(Healing in Forest),진안 (국제건축전 도록수록)

붙임 5.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국제건축전 참여작가 이력

○ 김태만

- 학 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

- 주요 경력

2005~현재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08~현재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2007 펜실베니아 대학교 방문교수
1999~현재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김현수

- 학 력

국립창원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 주요 경력

2010~현재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_ 설계스튜디오 지도
2011~현재 이소우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2010~2011 (주)건축사사무소 유니트 유에이 대표 건축사
2006~2008 (주)건축사사무소 핸드
2005~2006 (주)건축사사무소 힘마

○ 박승홍

- 학 력

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 MA.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Minnesota, MN.
Freie Universitat Berlin, Germany

- 주요 경력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펜 대표이사 2007. 7 ~현재

(주) 정림건축 사장, 2000~2007

Design Principal, Anshen+Allen,1992

Design Principal, Cannon Design Inc.,1989

Principal Project Designer, Pei Cobb Freed and Partners,1988

Principal Project Designer, Doug Okun and Associates,1986

○ 박진택

- 학 력

University of Westminster. London, UK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London, UK

Hanyang University. Ansan, Korea

- 주요 경력

2011~2012 LCE Architects

2009~2011 LCE Andrzej Blonski Architects

2006~2009 Squire and Partners

2003~2004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Ltd. London. UK

2001~2002 KUNWON INTERNATIONAL INC. Seoul, Korea

○ 오영욱

- 학 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스페인 ELISAVA 디자인 스쿨 마스터

- 주요 경력

문화체육관광부 학교만들기 사업 디렉터 2010

한국방문의해 기념스탬프 심사위원 20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평가위원 2010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보조큐레이터 2011

서울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위원 2011~
부천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총괄 PM 2011~
서울시 공공건축가 2012~

○ 윤창기

- 학 력
영국 AA스쿨 Master of Architect and Urbanism (DRL)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 주요 경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경암 대표건축가 / 대표이사
2005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MET 국제공모전 대상
2009 대한민국 공간디자인 대상 특별상
2012 올해를 빛낸 건축. 디자인 크리에이티브아키텍트 수상
대전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외래교수.

○ 이상립

- 학 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박사)
호주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대학원 건축과(석사)
한양대학교 건축과(학사)
- 주요 경력
APEC ARCHITECT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UNESCO Chair Professor_ 역사구역의 사회적 지속가능성(2008-2010)
Harvard University GSD Visiting Scholar(2006-2007)

○ 한종률

- 학 력

서울대학교 졸업

미시간대학 MA

- 주요 경력

현 삼우건축 부사장, 전략사업부장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 문화공간건축학회 부회장

James Stewart Polshek and Partners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PC, Frank O. Gehry and Associates

붙임 6.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국제건축전 참여작가 작품소개

김태만 Kim, Tae Man



Weaved and Imaginary Ground: 건축적 상상속을 걸어가다 Walk in Architectural Fantasy

장소적 체험과 의미에 주목하여, 건축물이 사람들의 삶을 재현하고 연출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post-grey' 와 'engraving emotions' 의 문제제기에 호응하여, 도시-건축-조경의 매체적 융합에 의한 건축표현 및 사고의 확장을 드러내고, 집합적 기억-건축적 상상 속에 연출되고 체험되는 사람들의 경험을 표현한다.

#1 건축화된 인생을 걷다. Walk into a Life-Affirming Architecture : 서울 추모공원

- 자연이 계곡으로 수렴하는 움직임이 건축과 조경을 조형. (weaving , sculpting).
- 회귀-수렴의 의미를 화장동선과 중정공간으로 표현.(화장의 극단적 체험을 종교적 승화의 체험으로 변화하는 과정)
- 용도의 확장, 감정의 확장을 의도하여 다중적인 공간체험 유도. 건축이 없는 건축, 화장장 아닌 화장장.

#2 구축된 경관을 걷다. Walk on a Constructed Scenery : 플로팅 아일랜드

- 건축개념과 구축론 상의 유동성을 드러내기, 연속적인 뷰를 만들기. (floating, sequential).
- 대상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장소 만들기. 강에 대한 체험을, 여정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확장시키기.
- 건축적으로 구축된 경관을 만들어, 수변과 도시와의관계확장.

3 은유된 자연을 걷다. Walk with a Metaphorical Nature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

- 건축과 지형의 결합, 다도해(수면-갯벌-섬)로 은유되는 커들의 결합구조.(weaving, layering)
- 도시-건축-조경의 매체적 삼분법이 융합되는 체험.
- 바다로 대변되는 엑스포의 비일상적 체험이 녹지로 대변되는 일상적 체험 및 교합.

김현수 Kim, Hyun Su



전시주제

Abstracted and Rehearsed Grounds _ Restructured Ground _ "BEHIND EMPTY"

전시의도

건축에서는 점유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EMPTY _ 비워진 공간"의 함축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잊고 있다.

프로젝트는 오늘날 우리 일상 거주지의 일부인 모든 빈 공간의 다양한 점유 현상과 발생 원인에 주목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의도된 비움의 공간이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영상작업을 통해 이야기 할 것이다.

영상작업

비워진 장소에 대한 단순한 가치판단이 아니라, 비워진 상태가 의도한 바를 인지해 나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비움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30명의 건축과 학생들에게 빈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비워진 상태를 찾도록 한다.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다시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낼 것이다. 즉 건축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매체를 통한 실험적 과정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빈 공간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공론화 하고자 한다.

박승홍 Park, Seung Hong



Engraving Emotions

지난 몇 년에 걸쳐 세 개의 특별히 잊을 수 없는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로 프로젝트의 규모나 내용, 등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개의 건물이 위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서로 너무도 틀리면서, 하나 하나는 그 성격이 또한 너무도 극단적 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기 틀린 해석과 그에 따른 각기 독립된 상이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각각의 해석이 장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청 증축의 경우, 'Walk-in', 또는 'Walk-thru'를 통해서 건물을 먼저 인식하기보다는 도시 내의 공간을 발견하는 체험의 성격이 주제가 되고, 노들섬 복합공예예술 건물에서는 'Walk-around'를 통해 오브제로 우선 건물의 인식이 되는 경우이고, 경기도청사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도시를 상상해야만,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Walk-thru' 해야만 감성적 만남이 가능합니다. 모두 각각의 장소의 특질로 인해 체험의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상의 보편적 공간에서 건물을 만나는 일반인에게는 각각의 건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형태의 'Walk in architecture'를 통해서 환경 속의 일부로 체험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특정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은 그 체험이 Engraving된 Emotion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박진택 Park, Jean Taek



Ereignis(존재사건) -탄생의 모태공간에서 죽음의 모태공간까지

파편화되고 표피적인 이미지의 홍수 속에 작가는 실존적 존재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인간의 삶과 존재의 가치 그리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정립을 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쟁점은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가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몽상의 내러티브(narrative), 둘째, 과학과 증거에 입각한 현실에 대한 즉시와 창조적 고찰,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건들과 물리적 공간의 제안이다. 세 개의 층위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보행자 길에서 적층되어 있다.

경복궁에서 시작하여 국립서울현충원까지 남북축을 따라 네개의 상징공간을 설정하고 이야기로 관계지었다. 남북축을 따라 걷는 행위는 곧 이 이야기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한강에 의해 단절된 이 길을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보행자 다리로 연결한다. 이 다리는 현충원의 운구행렬이 강북에서 시작하여 한강 수변 공간 전체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는 동영상을 이미 디자인이 완성된 작품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의 차원을 찾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도구로 사용하였다. 베르그송이 '창조적으로 진화'에서 주장하였듯 이 프로젝트도 Duration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의 다양한 차원도 열릴 것이라 믿는다.

오영욱 O. Young Wook



묵묵히 도로공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로봇과, 강남의 이면도로를 점령한 발렛 파킹 부스에 관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건축과 개발의 경계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거나 모호하게 합쳐져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산된다. 다만 소비자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토건 위주의 대형개발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과 도심에서의 보행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를 우화적인 느낌으로 도로공사용 로봇의 설치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도로공사용 로봇의 새로운 직업

자동차가 세상을 뒤덮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보행 기반의 전근대 도시 구조는 현대도시에서 보행환경과 교통흐름이 이루어내는 불협화음을 양산했다. 근대와 전근대의 경계가 불명확한 대한민국에서 70년대 개발된 강남 지역의 이면도로는 그런 상황을 가장 잘 대변했다. 작은 교차로들은 항상 혼란에 빠져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되어 걷는 도시를 지향하기 시작한 한국에서는 과도한 도로공사가 지양되면서 이전까지 활발히 활동하던 수많은 도로공사용 로봇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실업자가 된 로봇들은 실의에 빠졌는데 도시정부는 그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제안했다. 그 일이란 다름 아닌 도시 내 좁은 골목에서의 발레파킹을 막는 경계병의 역할이다. 그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구시대의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다. 보차분리라는 인프라가 결여되어있던 한국의 근대 골목길들은 과거 도로공사에 몸 바쳤던 로봇들에 의해 비로소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윤창기 Yun, Chang Ki



Featured Ground

감각의 너머로

Synesthesia+χfactors=Spaces

사람이 건축공간을 인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복합감각(Synesthesia)이 지각요소들(χfactors)에 의하여 어떻게 공간을

상상(Spaces)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지각요소가 불충분, 불완전 하다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나름대로의 상상을 통해 공간의 형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공간지각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험이 주관적으로 작용해 공간, 건축물 형태가 다른 모양으로 외곡 되거나 모호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과 모호함은 단순히 혼란을 말하게 될까요?

이것은 또 다른 상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단서만 이 표현되어 순전히 사람들의 경험과 상상력에 의존하는 공간에 대해, 물 위 플로팅스테이지는 들판을 거닐다 희미하게 들리는 음악소리에 이끌려 가는 감각의 전개를, CLOUD360(전망대)은 자연 속에서 하늘과 구름의 움직임에 접근하는 감각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감각을 통한 전개를, 3가지 건축 작품을 통해 제시합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며 주위 소리와 풍경들에 집중하다보면 어느 순간 다음 장면을 상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복합적인 감각의 요소를 통해 상상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로의 전환 ! 어쩌면 새로운 건축의 형태를 이끄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림 Lee, Sang Leem



인간 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는 건축은 **물질적 형태를 이루는 건물뿐** 아니라 이와 관계된 **비물질 형태의 관계망** 또한 건축의 중요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수년간 해왔던 건축적 작업은 프로젝트를 통한 **물질적 건축(hardware)** 작업뿐 아니라, 공간지, 판화비엔날레, 공간 학생 대상 등 건축의 환경을 이루는 **비물질적 작업(software)** 또한 동등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 가치 또한 함께 융합하여 생각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건축을 대하는 인간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의 공공적 특징과 요소라 생각한다.

영상은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Information Visualization]**의 방법으로 그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마치 인간의 DNA 구조를 시각적 트리(tree)로 보여줌으로써 복잡다단한 인간생체구조를 일반화된 개념으로 쉽게 인식시킬 수 있듯, 건축적 관계망이 복잡하고 다층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수식 값을 가지고 단순화시킴으로써 시각적 전달이 용이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건축의 환경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건축 프로젝트 작품과 비물질적 다양한 활동(activities)의 관계망 구성에 있어 위치(location)를 매개체로 하여 시각화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인간은 시점에 따라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위치를 재해석하게 된다. 이 영상은 결국 물질적, 비물질적 관계망에 의해 구성되고 재해석된 건축지표(architectural ground)를 제공하고 그 곳을 유영(walking)하는 인간(mass)에 의해 새로운 건축기반(common ground)이 생성됨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축적된 시간과 경험이 상술된 "Space city" 라 명명된 기반에 구현하고자 한다.

한종률 Hahn, Jong Ruhl

근래에 '장소적 기억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도시에서는 오래된 기억으로서의 장소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장소적 기억이 의미 있는 이유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간을 보고, 체험하면서 그로부터 의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의 의미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 동

시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사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옛 건축물이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의문들로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지만, 옛 건축물 역시 비록 그것이 아픈 과거사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담고 있기에 의미가 있고 보존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립미술관, 옛 명동국립극장, 구 서울역사 세 프로젝트를 지난 10년간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다.

본 비엔날레 전시를 통하여 우리 근대사의 다양한 기억을 담고 있었지만, 고착된 흔적으로 남아 있던 공간을 건축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일상으로 확장되고, 더불어 함께하는 장소, 추억을 나누는 장소, 공공의 장소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한국건축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과 새로운 실현성을 공

유하고자 한다.